

배포 일시	2023. 1. 5.(목)		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과 장 김혜진 (044-201-3254)
	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담당자	사무관 최민중 (044-201-3264)
보도일시	2023년 1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교통부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,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

- CES2023참가, UAM 산업현장 방문으로 글로벌 트렌드 파악...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‘CES2023’에 참가하여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핵심 산업들의 글로벌 기술 동향을 살피고, 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.
- 올해 개최되는 CES 2023의 경우 ‘지속가능성’이라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, 웹 3.0 등의 혁신적인 부문이 신설되고,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(스마트홈) 등 유망 분야가 확장·구성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성이 많다.
- ※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CES에 참가하여 드론, 스마트시티, 자율차 등의 국토교통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적기·지속적 마련

### 【 CES(Consumer Electronics Show) 개요 】

- (개요) 미국 소비자기술협회(CTA: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)에서 주관하여 '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되는 소비자전자제품 박람회이자 세계 최대 IT 전시회로서 다국적 정부·기업 참여
- (영향력)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, 자율비행 드론 시연 등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동시에 매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으로 세계적 산업 방향 고찰
- (CES023 규모) 전세계 170여개국 3,000여개 기업 참여 예상  
※ 2022년에 비해 전시관 규모 50% 확장 등 코로나 이전의 전시규모로 정상화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CES2023이 전세계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젊은 실무진으로 출장단을 구성\*하였다.

\* 출장단의 2/3 정도를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자동차, 스타트업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젊은 실무진(‘사무관’ 이하)으로 배치

○ 이는 최일선에서 뚝 실무진들의 시각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미래 대처 방안과 혁신 기술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○ 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 이후 ‘MZ보드\*’를 신설(’22.7)하여 젊은 층의 입장에서 필요한 국토교통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책 현장 방문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것이다.

\* 직급, 성별, 소속 부서 특성, 입사연차 등을 고려하여 2030직원 15명으로 구성

□ 원 장관은 CES2023에 참가한 삼성, SK, LG 등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, 아마존(Amazon For Automotive), 존디어(John Deere), 모빌아이(Mobileye)등 해외의 우수한 기업의 부스도 방문하여 분야별, 기업별 주력 기술개발 동향을 면밀히 살펴으며,

○ 국내 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무인비행체의 자율비행을 관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불법 드론 식별 시스템 등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방안도 모색하려 한다.

○ 또한, 특별 전시로 마련된 한국관과 K-스타트업관도 방문하여 모빌리티, 첨단물류, 스마트홈, 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대학이 펼쳐고 있는 혁신적인 성과도 살펴볼 예정이다.

□ 더불어,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\*해 온 ‘국토교통부×스타트업 커피챗’을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3 참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한다.

\* '22년에는 스마트건설,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7회 개최

○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의 비전과 실현중인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, 해외진출·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하여 소통할 계획이다.

□ 도심항공교통(UAM) 핵심 기업인 Joby Aviation의 조벤 비버트(Joeben Bevirt) CEO와 Overair의 벤 티그너(Ben Tigner) CEO를 만나 기술 개발 수준, 국토부 실증사업 참여 전략 등을 논의하고 생산 공장투어도 한다.

※ 두 기업 모두 우리나라와 기술개발 협력 중이며, 국토부 UAM실증사업(그랜드챌리지) 참여 중

○ 또한,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, 정비 등 항공기 운항 제반사항에 대한 미국 항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, 협력 범위를 도심항공교통(UAM)까지 확대하기 위해 미국항공청(FAA)과 업무협약 선언서를 체결한다.

○ 최근 국토교통부는 ‘모빌리티자동차국’을 신설하는 등 지난 9월에 발표한 「모빌리티 로드맵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, 이번 도심항공교통(UAM) 핵심 기업 방문과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탄탄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원 장관은 산업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(Pete Buttigieg)장관과 미국 주택부 마르시아 퍼지(Marcia Fudge)장관을 만나 미래 모빌리티와 주택 분야의 정책도 논의한다.

○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(Pete Buttigieg) 장관과는 자동차 안전 등 기존 교통 분야의 양국 협력뿐 아니라, 자율주행·도심항공교통(UAM)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자율주행차, 도심항공교통, 전기·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기술개발, 서비스 혁신,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, 정부 간에도 기술 표준과 성능 및 안전인증, 인프라·제도 구축과 관련한 폭넓은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마르시아 퍼지(Marcia Fudge) 장관과도 만나 코로나19 회복 이후 물가와 금리 상승 상황에서 서민·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연착륙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한다.
- 특히,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,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·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양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,
-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, 상호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이번 美교통부·주택부, 모빌리티 핵심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공유하고, 선제적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, 모빌리티, 주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-미 간 유기적·협력적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” 한다면서,
  - “CES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고,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꾸려나가야 할 정책과 기업육성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겠다.” 고 밝혔다.
  - 국토교통부는 1.6일 인천에서 워싱턴으로 향해 美교통부와 주택부 면담 일정을 시작으로, 1.7~8일 CES2023 참가(라스베가스), 1.9일 Joby Aviation 방문(산호세), 1.10일 Overair 방문(LA)한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국토교통과학기술팀	책임자	팀 장 김혜진 (044-201-3254)
		담당자	사무관 최민중 (044-201-3264)
<공동>	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	책임자	과 장 심지영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 임유현 (044-201-3838)
<공동>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윤 (044-201-4215)
<공동>	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성호철 (044-201-3317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리 (044-201-3333)